

챗GPT 번역 프롬프팅 연구 : 학습 설계와 역할 부여

-1950년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설움'을 중심으로-*

김웅기**

-차 례-

1. 들어가며 : 번역 전 시인 학습 프롬프팅
2. 시 번역을 위한 GPT의 텍스트 학습 설계
3. 인공지능 번역의 방법론 : '역할 부여'
4. 나오며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16일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인공지능 기술과 한국문학 번역>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국문초록]

본고는 담화형 인공지능 챗GPT 모델을 활용하여 김수영의 시어 ‘설움’을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챗GPT의 의미 해석의 실제와 오류, 오독(誤讀)의 과정을 정리하여 각 세션을 비교하고 그 활용방안을 밝혔던 논의의 후속 연구로 ‘설움’이라는 단어를 챗GPT가 시적 정념의 맥락에서 번역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챗GPT를 활용해 인공지능 번역을 프롬프팅한다면 ‘학습 설계’와 ‘역할 부여’라는 방식을 통해 보다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챗GPT의 담화 구성 체계를 이해해 볼 때, GPT-4o는 이전 단계의 버전보다 더욱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답변을 제시한다. 그런데 GPT의 담화 기술은 전적으로 사용자 담화 수용 맥락에서 이뤄진다. 다시 말해 챗GPT가 옳은 답변을 제시해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잘못된 답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화 구성 체계에 따르면 챗GPT는 사용자의 프롬프트 지시 사항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정확도 높은 담화를 구성할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설계’와 ‘역할 부여’를 통해 챗GPT가 특정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가, 장르, 시대적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역할 부여 프롬프트가 진행될 때 보다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동반된 번역이 도출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찰할 수 있다.

주제어 : 챗GPT, 인공지능, 번역, 김수영, 설움, 학습설계, 역할부여, 프롬프트, 한국시

1. 들어가며 : 번역 전 시인 학습 프롬프팅

본고는 담화형 인공지능 챗GPT 모델을 활용하여 김수영의 시어 ‘설움’을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챗GPT의 의미 해석의 실제와 오류, 오독(誤讀)의 과정을 정리하여 각 세션을 비교하고 그 활용방안을 밝혔던 논의¹⁾의 후속 연구로 ‘설움’이라는 단어를 챗GPT가 시적 정념의 맥락에서 번역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주지하듯 ‘설움’은 「가냘픈 역사」에서도 드러나듯 김수영의 포로수용소 체험으로 감응된 자유 실현의 뿌리 감정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전쟁 직후라는 특정 시기에 쓰인 시편의 상징적 정념으로 상정되기도 한다. 시에서 김수영은 ‘설움’을 다양한 표현으로 변용해가며 사용한다. 예컨대 “끓다”, “설운”, “설워지듯이”, “설워진다”, “설워”, “끓다나”, “끓지가”²⁾ 등 ‘서럽다’의 활용어미를 다채롭게 구사함으로써 ‘설움’의 시어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설움을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존재로 인식하거나 의인법을 사용하여 시적 주체의 정서를 장악하는 타자로 제시하기도 한다.³⁾ 이처럼 ‘설움’이 시어로 등장하는 작품은 주로 1953년을 전후로 한 초기시편이다.⁴⁾ 그 가운데 이전 논의에서도 밝혔듯 1953~1955년에 쓰인 초기시편 「거미」, 「헬리콥터」, 「방 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구라중화」에는 ‘설움’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설움’은 비애나 피로, 죽음으로 전화되는 부정적 감응

1) 김웅기, 「챗GPT 담화를 통한 시어 고찰의 실제와 활용방안-김수영의 시어‘설움’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문학의 미래』,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95-133면.

2) 고려대학교 현대시 연구회, 『김수영 사진』, 서정시학, 2012, 434-435면.

3) ‘설움’은 시인의 「일기초」에서도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다. 다만 이 감정은 센터멘털리즘적 차원에서 감식되는 것이 아니라 “설움과 고뇌와 노여움과 증오를 넘어서 적극적인 정신”(김수영, 「일기초 1」,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18, 681면)으로 나아가는 필연적 정동으로 조용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를 파악하는 주된 시적 정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최하림은 ‘설움’을 “절망의 숨소리”라 표현하기는 했지만, “53년 12월부터 다음 해 12월 사이에 쓴 9편의 시를 보면 (중략) ‘설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등장”(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화사, 2018, 231면.)한다고 언급하며, 이 시기 감정들의 계기를 포로수용소 체험 직후와 아내와의 이별이라는 전기적 사실에 미루어 짐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상태를 보이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4·19혁명 이후 참여시로 김수영이 시적 태도의 전환을 가져가면서 자유와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정신상태로 이어지는 ‘궁지’의 뿌리 감정이 된다.

김수영의 시어 ‘설움’에 대한 논의는 ‘사랑’, ‘죽음’, ‘소외’ 등 그의 시 텍스트 전반에 포진되어 있는 상징시어 혹은 역사적 사실 간의 관계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⁵⁾ 이에 따르면 김수영의 설움은 시적 전개에 따라 극복 혹은 전이되는 양상을 띠며, 그것은 자기연민과 비극적 역사에 대한 추체험적 정념으로 발화되는 시적 정념이다.⁶⁾ 그러나 여기서 김수영은 ‘설움’을 극복해야 하는 감정 상태로 인식하기보다는 그것을 ‘생활’ 도상에 유유히 떠다니는 ‘하나의 존재’로 여기며 주체화하거나 공동체적 정념으로 확장하여 한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연결’을 제지하는 역사적 사건을 환기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김수영의 이 같은 관점이 하이데거의 사유와 연관한다는 전제⁷⁾ 아래, ‘설움’의 의미

-
- 5) 이에 대한 논의로는 김혜순, 「문학적 장자 와 김수영의 시 담론 비교 연구」, 『겨레어문학』 제21·22호,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7; 권오만, 「김수영 시의 기법론」, 『한양어문연구』 제13권, 한양어문연구회, 1996; 김혜원, 『김수영 시의 설움 극복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영희, 『김수영 시의 자아성찰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방인석, 「김수영 시의 자유와 설움의 상관성 연구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4호, 한민족문화학회, 2010; 전병준, 「김수영 초기 시의 설움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연구」, 『批評文學』 제3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엄경희, 「김수영 시에 내포된 자발적 소외와 ‘설움’의 정념」, 『한민족문화연구』 제53호, 한민족문화연구, 2016; 오채운, 「김수영 시의 설움에 대한 고찰」, 『인문연구』 제 80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박주택, 「김수영 시의 소외 연구」, 『現代文學理論研究』 7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등을 참조했다.
- 6) 이에 대해 엄경희는 거제 포로수용소에서의 체험과 아내의 일탈로 인해 각인된 ‘모욕’이 김수영의 초기 생활시편에서 “생활 태도와 밀착되어 나타나는 정념이 ‘설움’”이며 이것은 “생활 속에서 생활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소망하는 데서,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엄경희, 「김수영 시에 내포된 자발적 소외와 ‘설움’의 정념」, 『한민족문화연구』 제53호, 한민족문화연구, 2016, 224-225면.)
- 7) 잘 알려진 대로 김수영의 「반시론」과 「시여, 침을 뱉어라」를 통해 그가 시론에서 하이데거의 「틸케론」 번역판을 읽고 영향을 받아 시론을 작성했다는 사실로부터 더 나아가 초기시작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의 영향을 받았다는 방증은 김유중의 「병풍」 해석과 임동환의 「모리배」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유중은 「병풍」에 등장하는 “육칠용해사”를 시가 쓰인 1956년을 기점으로 67세가 된 하이데거를 지칭하는 말로 풀이하며 “세익스피어는 ‘사옹’으로, 톨스토이를 ‘두옹’으로 지

를 챗GPT와의 담화를 통해 고찰하고 그것의 유의미한 번역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타진해보기로 한다.

챗GPT는 Transformer Decoder를 기반으로 한 사전학습 언어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 PLM)로 현재는 GPT-4o(‘o’는 모든 것 ‘omni’의 약자⁸⁾)와 GPT-4o mini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기존의 GPT 모델은 대중화가 시작된 3.5 버전을 기준으로 토큰나이징(tokenizing)이 가능한 토큰 수를 2,048토큰으로 한정해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GPT-4o와 GPT-4o mini는 5배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챗GPT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담화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진 것이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활용하여 지난 모델의 담화적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2~3년 사이 빠르게 진행된 GPT 관련 초거대언어모델 인공지능의 활용 논의는 GPT의 언어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오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더 주목된 것은 프롬프트의 구성 문제였다. 필요한 담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맥락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GPT의 답변 가능성은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 그리고 유의미성의 도출을 위해 사용자(user)는 어떤 방식으로 프롬프팅을 구성해야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챗GPT를 활용한 문학적 담화의 가능성은 번역 가능성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거짓

칭해왔던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김수영이 하이데거를 ‘해사’로 암시하려 했을 가능성은 충분”(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 민음사, 2007, 101면.)하다는 언급을 통해 김수영과 하이데거의 관계성을 일찍이 찾았다. 임동화 또한 “1959년에 창작된 그의 시 「모리배」에서 하이데거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임동화, 「궁색한 시대, 김수영과 하이데거 - 「모리배」 전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63집, 국제어문학회, 2014, 46면.)을 토대로 작품 자체에서도 김수영이 하이데거의 ‘보통내기 das Man’ 개념을 경유하고 있다고 파악함으로써 김수영이 작고하기 직전에 하이데거를 탐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 8) 김민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학 이미지 생성 방안 -이상 문학을 중심으로」, 『이상리뷰』 21호, 이상문학회, 2024, 70면.
- 9) 지인영, 김희동, 「대형 사전학습 언어모델 연구에 대한 고찰」, 『담화와 인지』 제28권 4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21, 129-130면. GPT-4o와 4o mini 버전의 경우는 그 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전 버전을 상회하는 PLM 규모를 가진 AI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음성 인식과 이미지 인식까지 가능해졌다.

도출(Hallucination)¹⁰과 수정 도출을 통한 유의미한 담화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만 번역의 차원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리어 사용 미숙과 오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담화적 맥락 속에서 단순히 “번역하십시오”라는 프롬프팅을 진행했을 때 챗GPT가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의 폭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챗GPT의 텍스트 구성 방식에 연관하는 것이기도 하다.

챗GPT는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통해 입력받은 텍스트 데이터를 맥락화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사용자가 사용한 언어의 주변 언어를 가져와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챗GPT는 ‘영어’로 모델링된 더미데이터를 번역하여 한국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의 모든 언어를 더미데이터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언어에 맞추어 자신의 언어를 선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딥러닝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학습된 데이터와 주어진 데이터 사이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자기주도학습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챗GPT가 전문 지식에 대한 ‘그럴듯한 답변’이나 번역문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언어적 맥락이 아닌 비언어적 맥락의 차원에서 역사와 철학의 관점, 그리고 사회의 관점에서의 유의미성을 내포한다 할지라도 이를 인공지능의 인지 능력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챗GPT를 활용하여 은유와 상징으로 표상되는 시어를 번역하는 것에는 다소간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활용한 문학

10) 거짓 도출이란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 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맥 또는 단락을 구성하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오류를 의미하는 Hallucination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제작한 단어이며 이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수정 도출이라는 용어를 함께 제시했다.(김웅기, 앞의 글 참조.) 이와 비슷한 용례로 거짓정보, 이상탐지, 프롬프트 수정 등의 용어가 존재한다.

11) ““편견이 없고 공손한 태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챗GPT가 “가끔 잘못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 진술의 행간에는 인간이 챗GPT의 사고방식과 판단방식에 접근할 수 없는 불투명성이 내포되어 있다. 2023년 3월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 사용 가능한 업그레이드 버전 GPT-4가 출시되면서 오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으니 바야흐로 특이점을 넘어선 “인공지능의 캄브리아기”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김화선, 「챗GPT에(게) 묻다」, 『리터러시 연구』 제 14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2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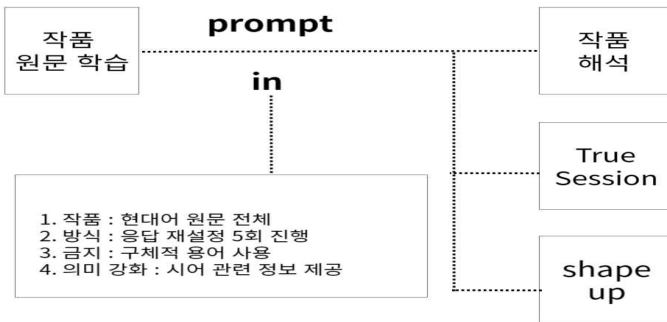
적 담화의 가능성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시인의 체험과 시인이 자주 활용한 시어의 의미 변용을 이해한다는 가설 아래 다음과 같은 번역 실험을 해보고자 한다.

2. 시 번역을 위한 GPT의 텍스트 학습 설계

본고에서 활용한 챗GPT의 버전은 GPT-4o이다. GPT-4o는 이전 연구의 모델로 활용하였던 GPT-4와 비교했을 때, 학술적 리터러시의 형식 및 맥락 요소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확인된다.¹²⁾ 시인 김수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프롬프팅에서도 첫 시집 『달나라의 장난』을 언급하거나 사망 경위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인용 출처를 명시하는 등 텍스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 물론 인용 출처가 인터넷 정보 기반(<위키백과> 등)이기 때문에 『김수영 전집』의 연보를 기반한 작성은 아니지만 “1959년 『달나라의 장난』 출간”, “1968년 6월 15일 사고”, “16일 사망” 등 GPT-4에서는 다소간 부정확하게 작성되었던 시간 표기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김수영의 시를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표현이 다수 보이기는 하나 중심 시어를 기준으로 각 연과 행의 핵심 내용을 해석하고 “결론부”를 제시함으로써 시의 주제를 통찰할 수 있는 요약문을 제공한다. 이 같은 글의 구조성에 대한 견지는 GPT-4의 결과값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12) “최근 GAI(생성형 인공지능(인용자 주)에 대한 연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구글 학술검색에서 ‘GAI’를 검색어로 2024년부터 이루어진 연구를 검색하면 무려 1만 6천 건 이상이 검색되며, 2023년을 대상으로 하면 1만9천 건이 검색된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GAI를 통해 생성된 텍스트가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GAI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번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기계번역 연구가 번역 연구에서 주요한 분야로 자리잡았기에, GAI 번역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른 학문 분야와 달리 국내 번역 연구의 상당수는 챗 GP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임진, 이용훈, 「생성형 AI의 번역문 구분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현대문법연구』제123호, 현대문법학회, 2024, 140면.)

본 논문은 이러한 GPT-4o의 텍스트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어의 의미 고찰을 위한 프롬프트 매뉴얼’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미>,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헬리콥터>, <구라중화>를 재학습시켰다.



시어 의미 고찰을 위한 프롬프트 매뉴얼 설계

작품 원문 학습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에 있어 작품은 반드시 현대어 원문 전체를 제공하였다.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몇 가지 한자어 또한 한글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이는 챗GPT가 언어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언어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그 답변의 결과는 ‘응답 재설정 5회 진행’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챗GPT는 사용자의 응답 재설정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텍스트 구성 방식을 찾고 더욱 정교하게 답변하기 위해 텍스트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지’와 ‘의미 강화’를 통해 김수영의 시를 ‘설움’이라는 시적 정념을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정리하였다.

김수영의 시 「거미」에 나타난 주된 정서는 **삶의 고통과 피로,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자기소외와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핵심 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움과 소진의 정서**
 - “오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이라는 표현은 극심한 내적 고통을 드러냅니다. 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소모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 거듭된 고통의 경험으로 인해 “설움과 입을 맞추”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이것이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삶 속에서 고통이 점점 내면화되어 자아를 소진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2. 고통에 대한 염증과 피로**
 - 시인은 “오스러진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며 고통에 익숙해진 자신을 자각하며, 그것마저 염증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 것을 넘어, 고통 자체에 대한 혐오와 회피의 정서를 나타냅니다.
- 3. 삶의 목적과 희망에 대한 갈등**
 - “내가 오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나 목적을 추구하려는 인간적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열망은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듯한 모순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 4. 거미의 상징성**
 - 시의 중심 이미지는 “가을바람에 날려 가는 거미”입니다. 거미는 연약하고 외롭게 그물을 치며 살아가는 생명체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고군분투하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미가 날여가고 타버린다는 이미지는 생명의 유한함과 피로를 암시하며, 시인의 절망적인 자화상을 투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는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적 노력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절망과 소진이라는 이중적 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수영이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삶의 모순적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앞서 보이는 이미지는 김수영의 「거미」에 대한 챗GPT의 학습 내용이다. 사용자는 프롬프팅에서 「거미」 전문을 제시하고 “이 시에 나타난 주된 정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요청하였다. 이는 「거미」에 ‘설움’이라는 시적 정념이 직접 드러나 있으며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다는 언술을 통해서도 시적 주체가 감응하고 있는 주된 정서가 ‘설움’이라는 사실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챗GPT가 「거미」를 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시를 장악하고 있는 주된 정서가 ‘설움’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 하에 질문을 제시한 것이다. 챗GPT는 “설움과 소진의 정서”를 주된 정서로 파악하면서 “오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을 통해 소모되는 시적 주체의 삶이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는 것을 통해 반복됨으로써 피로감과 존재로서의 소진을 이야기한다. 주목할 점은 거미의 상징

성을 해설하는 상황에서 거미의 늪음이 유한한 시간성 위에 존재하는 시인의 자화상의 투영으로 본 것이다. 이는 김수영의 시에서 ‘설움’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단절면 사이에서 기폭하는 시적 정념이자 죽음에서 삶이 재생되는 (불)연속적 과정을 긍지로 추수하는 과정에 대한 단서를 우연하게 제공한다.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적 노력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절망과 소진이라는 이중적 정서”에 감응하는 시적 주체의 태도를 「거미」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을 통해 불화하는 말들의 변증법적 합일이 김수영의 시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에서 유의미한 맥락으로 해석해볼 여지가 없지 않다.

한편 이러한 「거미」에 대한 챗GPT의 학습과 더불어 해석의 관점에서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요청했다. “해석한 대로 김수영의 시 <거미>에는 설움이라는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김수영의 시에서 나타난 설움이라는 정서는 일반적인 의미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챗GPT는 ‘설움의 존재론적 차원, 반복과 익숙함 속에서의 설움, 사회적 차원의 설움, 설움의 미학적 승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설움과 일반적인 의미 혹은 사전적 의미의 설움의 차이를 답변한다. 그 세부내용은 “그의 시에서는 설움이 삶을 태우는 불꽃처럼 묘사되며, 이것이 곧 존재의 소멸과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인간이 삶 속에서 느끼는 무력함과 실존적 고민을 상징”한다거나 “김수영의 설움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담고 있어,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니다.”, “그의 시에서 설움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인간이 삶의 의미와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필연적 요소” 등을 서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미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소 일반론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으스러지는 설움”이라는 시구에 매몰된 해석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설움’의 의미를 시적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구와 시어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보인다.

김수영의 「헬리콥터」는 한국전쟁이라는 트라우마의 기표이자 모더

3. 설움의 연속성과 헬리콥터의 "영원한 생리"

- *****설움이 설움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설움이 단순히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되고 반복되어온 고통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전쟁, 분단, 억압 등의 한국 현대사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 *****헬리콥터의 영원한 생리*****는 헬리콥터라는 기계적 존재가 설움을 초월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헬리콥터는 전쟁과 억압의 상징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을 드러냅니다.

4. 헬리콥터와 순수한 치정

-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치정을 헬리콥터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라는 구절은 헬리콥터가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헬리콥터가 단순한 기술적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설움을 관찰하고 반영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기능함을 시사합니다.
- *****헬리콥터여 너는 설운 동물이다*****는 헬리콥터를 설움의 존재로 의인화하며, 인간의 고통과 기계적 존재 사이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헬리콥터는 기술적 진보와 인간의 설움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니트의 상징인 ‘헬리콥터’를 “설운 동물”이라 언술함으로써 “설움”의 주체가 사람으로부터 헬리콥터로 전유되는 시적 상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공간인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설움으로 감내하는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노래하며 “비애의 수직선”이자 “설운 모양”으로 표현되는 헬리콥터의 운동성을 구경하는 “민중의 치정”을 포착한다. 이 같은 묘사의 반복은 한국전쟁 직후 김수영의 민족과 분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한 개인의 ‘설움’이 헬리콥터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민중의 설움으로 전포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묘파되는 것이다. 「헬리콥터」에 대한 챗GPT의 해석은 어떠할까?

인1 상징이면서 기계의 생리를 따르는 객관적 시선으로 치환하는 해석이 나 인간의 삶과 설움을 관찰하는 존재로 기능하는 헬리콥터가 설움의 존재로 치환되는 과정, “헬리콥터여 너는 설운 동물이다”라는 시구를 통해 그것이 기술적 진보와 인간의 설움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트랜지션이라는 사실을 짚어내는 대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의미한 해석은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이나 「구라중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 대조와 역설의 수사

- “설움을 역류하는 아픈 것만을 구태어 찾아서 헤매는 것은 우둔한 일일줄 알면서”라는 구절에서 설움을 피하려 하거나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위를 묘사하며 역설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 설움은 보통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시인은 이를 삶의 본질로 인정하고 마주하는 역설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설움의 필연성과 그것이 개인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 설움을 “생활이며 정신이며 시대이며 말바닥”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정서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대조적 효과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설움의 깊이를 성찰하게 합니다.

2. 은유와 상징

- “비가 그친 후 어느 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단순히 날씨의 묘사를 넘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의 정서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는 설움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심리적 상태를 암시합니다.
- “방안”은 외부와 단절된 내면의 공간으로, 설움이 내재화되고 농축되는 장소로 상징됩니다. 이 방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시인의 내면 세계와 정신적 공간을 대변합니다.
- 설움을 “충만되어 있는 것” 또는 “유유히 자기의 시간을 찾아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은유는 설움이 단순히 소극적인 감정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설움이 생동감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결론

김수영의 시 「구라중화」는 설움을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아름다움과 허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 정서로 형상화합니다. 이 시에서 설움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모순을 상징하며, 삶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수사적 장치와 상징들을 통해 설움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누적되며,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은 삶의 깊이와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설움이 단순히 비극적 정서로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김수영의 독창적인 사유를 보여줍니다.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을 학습하고 해석할 때 사용자는 설움의 의미를 “수사학적 관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답변 가운데 주목할 점은 설움의 역설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챗GPT가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GPT-4o 이전 버전의 모델의 경우에는 역설과 반어를 표현하거나 해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GPT-4o 버전에서는 그러한 한계가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수영의 시뿐만 아니라 현대시를 해석할 때의 상당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의 알레고리를 파악하고 기표로 위장된 시어의 진위를 시적 주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챗GPT의 이 같은 시적 맥락 구

성의 가능성은 앞으로 도래할 범용인공지능 사회에서의 예술 향유의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설움은 보통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시인은 이를 삶의 본질로 인정하고 마주하는 역설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해석에서 이는 김수영이 설움을 응시하는 이유가 단순한 센티멘털리즘이 아닌 시적 원동력인 ‘궁지’로 변모시키는 맹아로 인식한다는 시적 원리를 관통한다.

마지막으로 해석한 「구라중화¹³⁾」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챗GPT의 김수영 시의 ‘설움’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이 시에 나타난 표현들을 설움과 연관지어 해석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챗GPT는 “저것이야말로 꽃이 아닐 것이다”, “저것이야말로 물도 아닐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꽃의 존재성을 거부함으로써 드러나는 생명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이고 모순적인 진실을 시인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죽음 위에 죽음 위에 죽음을 거듭하리”라는 구절에서는 반복적인 소멸과 재생의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그 순환의 단절면에서 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언급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아름다움과 허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 정서”로서 “설움”을 노정시키는 챗GPT의 해석은 그 논리성에 있어 일면 타당하기를 넘어서는 지점이 분명 존재해 보인다.

김수영의 시어 ‘설움’을 시적 정념의 맥락에서 고찰함에 있어 GPT-4o의 해석 능력은 그 이전 단계의 버전을 상회하는 비언어적 맥

13) 챗GPT는 이 시의 제목에 대한 해설도 덧붙였는데 “구라중화는 아홉 겹으로 포개진 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겹의 아름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생명과 존재의 복잡성과 깊이를 상징합니다. 설움은 이러한 복잡성의 핵심 요소로, 삶의 다층적 본질을 형성합니다. 구라중화의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겹겹이 포개짐은 설움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경험과 시간 속에서 누적되고 심화되는 정서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설움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라고 말한다. 구라중화가 글라디올러스의 김수영 식 한자 표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해석은 불필요할 수도 있으나, 九羅重花에서 ‘겹겹이 포개짐’이라는 이미지를 형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움의 깊이를 고찰하였다는 비평적 지점은 챗GPT의 기술적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락으로서의 상호접합성을 잘 보여준다는 사실을 담화 과정을 재고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김수영의 ‘설움’ 시편이 학습된 세션에서 실험되는 번역은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을까?

3. 인공지능 번역의 방법론 : ‘역할 부여’

한국문학 수출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은 비영어권 문학이 영미권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권에서 번역·출간됨으로써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취득하는데 인공지능이 조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요청한다. 번역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범용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다소 찾아보기 어렵다. LLM(초거대 언어모델)을 바탕으로 구축된 GAI(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가능성·윤리·활용법 등 다양한 입장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현재에도 시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대한 실험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¹⁴⁾

또한 인공지능의 번역은 ‘창작’과 더불어 저작의 윤리성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그 어떤 영역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지점을 내포한다. 오늘날 출판산업계와 예술계에서 인공지능이 음악, 문학, 그림 등의 예술 분야에서 작품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라는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령 인공지능이 시를 창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완전한 창작 형태로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조합인지에 대한 숙의적 과정이 생략될 수 없는 것처럼, AI가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생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 등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이차적 저작에 해당하는 번역 역시 동일한 문제로부터 불가피해 보인다. 번역에까지 인공지능이 개입할 수 있다면 그것

14) 이구용, 「AI 문학번역의 유용성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1권 4호, 세명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참조.

은 문학적 영역에 대한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인문학적 영역에 대한 존재론적 차원으로 전화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일 터다.

이러한 가운데 급진적인 논자들은 인공지능이 예술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전통적인 예술가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평가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예술의 결합은 많은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분야 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기술, 법, 문화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한 국제적이고 통합적인 표준화된 윤리적 제도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나,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둘러싼 인문학적 우려를 토대로 데이터 편향성을 지적하는 논의도 다수 등장했다. 인공지능은 학습데이터에 기반하여 새로운 데이터 생산을 수행한다. 만일 이 데이터가 사용자에 의해 편향된 이념이나 사회적 관념을 내포하는 지식이라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이나 번역물 역시 편향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편향을 어떻게 처리하고 교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실제로 챗GPT를 사용할 때도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향된 사건이 주입될 경우, 이를 챗GPT가 자동적으로 순화하는 기능을 최근에 업데이트한 바가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밍된 사물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친절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자와 인공지능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역할이지만,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갖춰지지 않고 첨단 기술이 개발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각종 윤리적 문제를 고찰한 방어적 태도로 프로그래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빠른 성장속도와 관련해서도 일시적인 규제 또는 제한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연구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 창작과 번역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사용자나 관람객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작품을 창작했는지 메커니즘에 대한 알 권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적 또는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텍스트 생성은 프로그램 자체, 혹은 개발자, 플랫폼 제공자, 사용자 중 저작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신뢰성과 윤리성을 가늠하는 일에 있어 복잡한 문제이다. 더불어 앞서 살폈듯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더욱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무엇이 진정한 예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뀔 수도 있다. 인간의 감정과 경험 없이 생성된 인공지능의 예술작품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지, 아니면 단순한 데이터의 조합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시적 번역의 방법론 모색 또한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김수영의 시를 챗GPT로 번역하는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번역 텍스트의 정확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번역 텍스트 속에서 ‘설움’의 시적 맥락을 어느 정도로 구현하고 함의할 수 있을지 고찰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김수영의 시를 번역하고 그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항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영역시집이 있어야 한다. 김수영의 시를 영역한 공식적인 해외 출판물은 김수영, 신경림, 이시영의 작품을 엮은 코넬대학교의 『Variations : three Korean poets』(Cornell University, 2001, 이하 『Variations』)가 유일하다. 이 영역시집의 번역을 맡은 역자는 브라더 안토니(Anthony Graham Teague)¹⁵⁾와 김영무이다. 그러나 이 시집이 영미권에서 출간된 김수영의 유일한 영역시집임에도 불구하고 “김수영의 시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는 시집이 “김수영만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시집이 아닌 데” 있으며 “번역 작품을 읽을 대상이 아무래도 소수의 영미권 독자일 것이기 때문에”¹⁶⁾ 번역하기 수월한 비교적 짧은 시들 중심으로 수록이 되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김수영 전집』(초판 1981)이 아니라 백낙청이 김수영 작고 20주기를 기념하여 엮은 시선집 『사랑의 변주곡』(창작과비평, 1988)을 원

15) 안토니는 구상, 고은, 천상병, 서정주, 김수영, 신경림, 이시영, 김광규, 박윤희, 이문열 등 1988년부터 한국현대문학 번역을 해온 영문학자이자 번역가이다.

16) 김태우, 「김수영 영역시의 비판적 분석: Variations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제24권, 국민대학교어문학회연구소, 2005, 374면.

전으로 번역하였다는 점에서도 김수영의 시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영역시집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최근 발간된 『시인의 거점』(그린비, 2020)을 살펴보면 T.S 엘리엇이나 사르트르, 트릴링, 카뮈 등 김수영이 시의 해석학적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참조한 작가와 비평가를 그의 번역 평론들을 통한 일종의 독서체험을 바탕으로 알 수 있다. 김수영은 연희전문 영문과를 중퇴하고 포로수용소 수용 당시 미군통역관으로 생존하고도 번역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또한 「시작노트 6」에서 시를 “일본어로 쓰는 편이 편리하다” 그러나 “나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령(妄靈)을 쓰고 있는 것이다”¹⁷⁾와 같은 고백에서도 드러나듯 영어와 일본어를 한국어만큼이나 잘 다뤘으며 다중언어에 익숙한 모습과 언어에 있어 자기의 철학도 명확했던 시인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주체의 고백이 시작노트편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들어 김수영을 4·19세대가 규정한 전후세대가 아닌 한글세대가 규정한 이중언어세대로 수급시킴으로써 그의 탈식민적 사유를 고찰한 논의도 있는 만큼, 김수영의 번역 문제는 단순히 생존이나 생계의 기능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오히려 생존과 생계라는 현실과 직결된 그 테제가 김수영의 자유를 향한 시적 사유를 더욱 첨예화했다는 점에서 그의 시세계에 잠정되어 있는 ‘번역관’ 또한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아울러 「시작노트 6」에서 <이 한국문학사>, <H>, <눈>(1966)이 습작편의 형태로 실려 있는데, <눈>의 말미에는 자코메티의 “There is no hope of expressing my/vision of reality. Besides, if I did,/It would be hideous something to/look away from”을 함께 적어두었다. 이를 번역하면 “내 현실의 비전을/표현할 희망은 없네/설령 해낸다 해도/그것은 흉측한 것/눈길조차 피하고 싶은”이라는 의미이다. 이때 김수영은 “hideous의 뜻은 몹서리나도록 싫다는 뜻이지만, 이것을 가령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to/look away from”이라는 말을 삭제해도 “재미있다”¹⁸⁾고 설명한다. 이처럼 김수영의 언어에 대한 예민성은 국어/영어/일본어를 막론하고 지배적으로 드러나 있다. 「시작노트 6」에서 시인이 언급한 예술가

17) 김수영, 「시작노트 6」, 『김수영 전집』, 앞의 책, 554면.

18) 위의 책, 551면.

및 작가, 비평가는 자코메티, 릴케, 헤세, 뢰트커, 말라르메, 콕토, 아르칸, 수전 손택, 메리 메카시, 엘리엇, 이상, 보들레르에 이르기까지 그가 <눈>이라는 시를 쓰기 위해 경유한 시적 세계와 미학적 세계를 환유시킨다. 그러면서 “‘폐허에 눈이 내린다’의 여덟 글자로 충분하다. 그것이, 쓰고 있는 중에 자코메티적 변모를 이루어 6행으로 되었다. 만세!”¹⁹⁾라고 언급함으로써 휴식과 정지의 의미로서의 ‘눈’이 관통하는 현실세계의 ‘보이지 않음’에 대한 통찰을 성취했다는 자평을 확인해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언어에 대한 시인 특유의 예민성이 그의 시적 정념에서 중심적 역할이자 죽음과 삶을 접면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설움’에 대해서도 다양한 언어적 차원의 시도를 허용해야 함을 인식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그의 시에 설움이 현현할 때, 중요한 것은 설움의 표현이 아니라 맥락의 형편에서 설움이 구조적으로 조직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금지와 자유라는 시적 이상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시간성의 감각인가 하는 것들이 ‘번역’에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김수영의 시가 오늘날까지도 번역되기 힘든 저간의 사정을 대변해주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영의 시를 인공지능으로 번역함에 있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ChatGPT 프롬프팅에 있어 ‘역할 지정하여 명령하기’²⁰⁾를 수행했을 때의 결과의 번역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수영에 대한 사전 지식만 제시한 채 작품이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 시적 번역이 어느 정도의 유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 위의 책, 554-555면.

20) 서울과학기술대의 『논리적 글쓰기』(논리적 글쓰기 편찬위원회, 2024)에서 제시한 <프롬프트 다듬기 체계> 중 한 유형은 ‘역할 부여’로 챗GPT는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 지시를 구체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답변의 장르적 특성과 글의 톤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바 있다.(김용기, 「AI 시대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프롬프팅 연구」, 『리터러시 연구』제15권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211면.)

【김수영의 ‘설움’ 변용 시어에 대한 챗GPT 번역 응답】

- **앓다:** to be sorrowful / to be heartbroken
- **설운:** sorrowful / mournful
- **설워지듯이:** as if sorrowful / becoming sorrowful
- **설워진다:** becomes sorrowful / is filled with sorrow
- **설워:** sorrowful / mournful (adjective)
- **앓다나:** (can be translated contextually, possibly as) I wonder if I am sorrowful / am I sorrowful?
- **앓지가:** (can be translated contextually, possibly as) is it sorrowful? / am I not sorrowful?

먼저 『김수영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설움’과 관련된 시어의 사례를 챗GPT를 통해 번역하면 위의 예시와 같이 제시하는데, 여기서 sorrowful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의어로 채택될 수 있는 sadness와 grief와 비교했을 때 시의 맥락에서 sorrowful이 가지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원텍스트에서 운용되는 폭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평면적이다.²¹⁾ sorrowful이라는 단어의 사용 자체는 적합한 것일지 몰라도 ‘설움’을 내포한 시적 풍경이 자유 또는 시적 미지에로의 ‘궁지’로 환유되는 김수영의 수사학적 원리를 맥락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번역인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 프롬프트를 진행하면서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을 번역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설움’을 직접적인 시어로 택할 뿐 아니라 시적 주체의존재론적 타자로 기능한다는 점, 그리고 방과 바깥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적 주체의 정념적 원동력으로서 설움이 길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설움’에

21) 이는 챗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번역에서 보이는 “어휘 의미 선택 오류”와 연관성이 깊다. “어휘 의미 선택 오류는 한 어휘의 뜻갈래(sense)가 여러 개 존재하는 다의어인 경우에 문맥에 적절한 뜻갈래를 선택하지 못해 의미 해석이 부자연스러운 오류이다.”(정유남,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분석 연구-졸업연설문 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중앙대학교인문콘텐츠연구소, 2022, 108면.) 다시 말해 ‘설움’의 다양한 의미 층위가 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은 그것을 ‘슬픔’이라는 하나의 의미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시적 문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 다양한 시적 표현이 번역어로서도 표현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김수영의 시적 정념 '설움'의 챗GPT 번역 프롬프팅	
사용자	시적으로 설움을 표현할 땐 어떻게 영어로 번역되는가?
챗 GPT	<p>“설움”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번역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p> <p>heartache: 마음의 아픔을 강조하는 표현</p> <p>anguish: 깊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나타내는 단어</p> <p>melancholy: 우울하고 애수 어린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p> <p>wistful sorrow: 그리움과 함께하는 슬픔</p> <p>이러한 표현들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시적인 뉘앙스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맥락이나 문장을 제공해 주시면 더욱 적절한 표현을 제안해드릴 수 있습니다!</p>
사용자	이 시적 표현들을 활용해서 김수영의 「방 안에서 익어가는 설움」을 번역하십시오.(원용된 시는 본고에서 생략함-인용자주)
챗 GPT	<p>On a day after the rain had ceased, I found <u>my room filled with sorrow</u>. Amidst the comings and goings, whether in straight lines or diagonals, <u>my sorrow</u> quietly sought its own time. Though I knew it was foolish to wander in search of strange things that might reverse <u>this sorrow</u>, I believed it to be my life, my spirit, my era, and my very foundation—(...중략..., 인용자)—my eyes and my spirit, even the tranquil thoughts that this night awaits, I calmly place upon the flow of time, knowing the art of overcoming difficult moments. This is surely my life, not anyone else’s. After bidding farewell to the last of <u>my sorrow</u>, I sit alone in the empty room, pondering which book of content I might dare to open.(밑줄 인용자)</p>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 번역의 정확도의 지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 층위 오류’는 어휘를 누락하거나 문법적 구성 요소를 잘못 배치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의 리듬을 형성하

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시구나 시어가 반복될 때, 이를 수사학적 맥락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누락시키거나 지시대명사나 다른 어휘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형태 층위 오류의 범주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을 번역할 때는 행과 연을 구분하지도 않았으며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적 기능을 하는 부호 ‘—’ 등,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의미 층위 오류’는 표기법 오류나 어형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²²⁾ 이 글에서 실험하고 있는 ‘설움’ 또한 의미와 어형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챗GPT가 이를 예각적으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챗GPT는 설움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수영의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을 번역했을 때 “설움”은 모두 sorrow로만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I found my room filled with sorrow”는 “방안에 설움이 충만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이지만 나름의 시적 성취를 얻었으나, 그 이후 “나의 설움”, “설움을 역류하는 야릇한 것만을 구태여 찾아서 헤매는 것”, “마지막 설움마저 보낸 뒤”를 살펴볼 때, 존재성 혹은 하나의 구체적 사물로 형상되어 있는 “설움”에 대한 직접적인 번역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적으로 충분히 번역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장에서 김수영의 시세계와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움’이 김수영의 시에서 어떠한 의미로 맥락화되었는지 학습한 세션에서의 번역은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보기로 한다.

One day after the rain stopped—
I found my room filled with sorrow.

Amidst the intersecting lines,
Straight or diagonal,

22) 이 외에도 인공지능 번역 기술 측정 지표로서 고유어 처리 능력, 통사 층위 오류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유정, 「현대시 인공지능(AI) 번역의 오류 양상 연구」, 『문화와 융합』,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참조.

My sorrow drifted slowly,
Searching for its own time.

To wander in pursuit of strange things
That flow against sorrow's stream
Is a foolish act, I know—
Yet I believed it to be my life,
My mind, my era, and my foundation—

(중략)

My eyes and my mind,
Even the quiet thoughts this night awaits—
I place them calmly upon the passing time,
Carrying myself through the difficult turns of life,
A skill I have come to know.
This is no one's life but certainly mine.

After sending off even the last sorrow,
In the empty room, I sit alone,
Wondering what kind of book
I might open.

-김수영,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The Sorrow Ripening in the Room)」,
챗GPT 옮김

두 번째로 번역된 시에서도 공통된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확연히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바로 시의 형태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다. 줄표를 활용해 김수영 특유의 호흡을 살리고자 했다는 점, 단문을 활용하여 시적 리듬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 부여’ 프롬프팅의 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On a day”를 통해 “비가 그친 날”로 번역된 첫 구절을 “One day”로 번역한 것은 “비가 그친 후 어느 날”을 더욱 명확

하게 번역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spirit”으로 번역되었던 것도 “era”로 수정이 되고, ‘sadness’ 대신 ‘sorrow’를 사용함으로써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해설을 통해 ‘정신’을 ‘시대(특정 시기와 역사적, 사건적으로 구별되는 시대)’로 수정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김수영의 시세계가 개인의 정신이나 사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포괄하는 의미의 단어를 채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마지막 구절에서도 “pondering which book of content I might dare to open”이 “Wondering what kind of book/I might open”으로 번역됨으로써 시적 사유를 의문형으로 맺음으로써 김수영의 시적 언술과 비슷한 뉘앙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첫 번째 번역보다 수사학적 이해가 높은 번역문이라 할 수 있겠다.

챗GPT를 활용해 인공지능 번역을 프롬프팅 한다면 이처럼 ‘역할 부여’라는 방식을 통해 보다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챗GPT의 답화 구성 체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맞물려 있다. GPT-4o는 이전 단계의 버전보다 더욱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답변을 제시한다. 그런데 GPT의 답화 기술은 전적으로 사용자 답화 수용 맥락에서 이뤄진다. 다시 말해 챗GPT가 옳은 답변을 제시해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잘못된 답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화 구성 체계에 따르면 챗GPT는 사용자의 프롬프트 지시 사항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일수록 정확도 높은 답화를 구성할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 부여’란 챗GPT를 통해 특정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이해도가 확보된 상황에서 작가, 장르, 시대적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역할 부여 프롬프트가 진행될 때 보다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동반된 번역이 도출된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 나오며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한 창작과 번역의 수월성은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리터러시 역량이 종래에 추구해왔던 사유의 과정을 축소시킨다는 맥락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텍스트와 의미의 조응에 있

어 역설과 반어의 수사학으로부터 코드화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문법은 애초에 시라는 언어의 정수로부터 실패한 언어임이 자명한 까닭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시의 발생과정이 시인의 존재성을 타진하는 데서 연유하므로, 시적 주체의 의미화 과정을 인공지능은 지나치게 소략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인공지능 세계가 도래하고 범용인공지능의 활성화가 시작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담론은 더욱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산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의 삶이 ‘축적’의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이를 기술하는 것이 리터러시-창작과 번역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볼 때, 향후 인간 영역에서의 필요한 구분적 관점은 인공지능의 역량을 인간-삶의 역량으로 전유하는 과정에서 활용-주체로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주체로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존재는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주지할 때 인공지능과 인간의 뚜렷한 차이는 스스로의 약점을 인식할 수 있는 ‘감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체의 타자화가 이뤄지는 시적 공명 속에서 인공지능은 역설과 반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적 사실로부터 유보되어 있다. 이는 인공지능은 기술적 완벽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실재적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완벽은 오류를 용인하지 않으나 완전은 불완전 다음에 오는 대타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오류를 삶이라는 시간성 안에 축적하고, 그 불완전성을 망각으로 극복하며, 무의식에 내재된 반성과 성찰로 실천을 이룬다. 김수영의 ‘설움’ 또한 그 개인적 실천이 모여 공동체를 집합시키고, 사회를 구성하며 다수의 사회체 들이 의지하거나 대립하면서 생동성을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시적 정념이고 시의 작동 원리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적이 아닌 조합의 알고리즘으로서 김수영의 ‘설움’을 번역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계의 현재성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활용해 ‘설움’에 대한 의미 고찰을 폭넓게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역할 부여’를 통해 유의미한 시적 번역을 일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김수영뿐만 아니라 여타의 시인들에 대한 작품 이해나, 시적 특징의 의미 해석이 수반된다면 인공지능 번역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챗GPT의 작품 해석 능력은 담화를 통해 학습

된 데이터를 자기주도적으로 문맥에 맞게 구성한 결과이기에 전혀 새로운 관점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김수영의 ‘설움’에 대한 의미 고찰에서 그것이 김수영의 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적 정신’과 ‘시학’을 경유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이를 통해 단일한 의미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차원적 관점의 여러 해석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번역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 윤리와 접면해 있는 번역의 저작 윤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도래해 있고, 번역된 시가 특정 시인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가 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수사학적 원리를 전혀 내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번역 대상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와 비판적인 관점이 인공지능을 활용성 있는 가치 기술로 만드는데 중요한 기준을 가진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용자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차원에서 발전된 인공지능의 기술력을 예각적으로 다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Abstract]

A Study on Prompting ChatGPT for Translation: Learning Design and Role Assignment

-Focusing on "Sorrow" in Kim Soo-young's Poetry of the 1950s-

Kim, Woong gi(KyungHee University Humanitas Collage)

This study serves as a follow-up to prior research that utilized the conversational AI model ChatGPT to examine the poetic diction of "sorrow" in Kim Soo-young's poetry, analyzing ChatGPT's interpretations, errors, and misreadings, and comparing these aspects across sessions to explore its potential applications. The current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ChatGPT can translate the term "sorrow" within the context of poetic sentiment. It suggests that leveraging ChatGPT's capabilities through "learning design" and "role assignment" can enhance its utility. By analyzing ChatGPT's discourse construction system, it becomes evident that GPT-4 demonstrates a more proficient and effective response mechanism compared to earlier versions. However, ChatGPT's discourse skills are highly dependent on the user's context of engagement. In other words, even if ChatGPT provides a correct answer, it may be perceived as incorrect if it does not align with the user's expectations. This highlights that the specificity of user prompts directly correlates with the model's ability to construct accurate discourse. Consequently, this study concludes that employing structured learning designs and role assignments

—where the model is equipped with specific details about the author, genre, and historical context—can significantly enhance the quality of translations imbued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work and its authorial nuances.

Key words : ChatGPT,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lation, Kim Soo-young, Sorrow, Learning Design, Role Assignment, Prompt, Korean Poetry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수영, 『김수영 전집 2』, 이영준 편, 민음사, 2018.

Open AI, ChatGPT, GPT-4o

□ 단행본 및 논문

김민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학 이미지 생성 방안 -이상 문학을 중심으로」, 『이상리뷰』 21호, 이상문학회, 2024.

김용기, 「챗GPT 담화를 통한 시어 고찰의 실제와 활용방안-김수영의 시어‘설움’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문학의 미래』,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_____, 「AI 시대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프롬프팅 연구」, 『리터러시 연구』제15권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김태우, 「김수영 영역시의 비판적 분석: Variations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제24권, 국민대학교어문학회연구소, 2005.

김화선, 「챗GPT에(게) 묻다」, 『리터러시 연구』 제 14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엄경희, 「김수영 시에 내포된 자발적 소외와 ‘설움’의 정념」, 『한민족문화연구』 제53호, 한민족문화연구, 2016.

이구용, 「AI 문학번역의 유용성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1권 4호, 세명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이유정, 「현대시 인공지능(AI) 번역의 오류 양상 연구」, 『문화와 융합』,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임동환, 「궁색한 시대, 김수영과 하이데거 - 「모리배」 전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63집, 국제어문학회, 2014.

임진, 이용훈, 「생성형 AI의 번역문 구분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현대문법연구』제123호, 현대문법학회, 2024.

정유남,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분석 연구-졸업연설문 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중앙대학교인문콘텐츠연구소, 2022.

지인영, 김희동, 「대형 사전학습 언어모델 연구에 대한 고찰」, 『담화와 인지』 제28권 4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21.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학사, 2018.

투고일: 2024.11.19 심사일: 2024.12.16 게재확정일: 2024.12.16